

학문적 글쓰기와 수사학적 설득*

안 미 현 (한국외대)

I. 들어가는 말

1960년대 이후 영미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기초교양학문으로 급격하게 부상한 글쓰기는 수사학의 부활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는 최근 들어 글쓰기(Composition, Writing)가 수사학(Rhetorik)과 종종 동일시되거나 적어도 연계적으로 사용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¹⁾ 다시 말해 근대 과학 정신의 시작과 더불어 학문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점점 축소되었던 수사학의 전통이 20세기 중반에 들어 글쓰기의 영역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수사학이 급격히 쇠퇴했던 시기에도 여전히 인접학문으로 수사학의 맥을 이어온 문학 영역 이외에도 언론학이나 광고학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나 언어학, 철학, 심리학, 신학 등 인문학 전반으로 확산된 수사학이 오늘날 특히 글쓰기를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말이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도 점점 비중을 더해가는 논술, 대학의 기초교양학문으로서의 글쓰기 교육과 논문 작성법 등, 글쓰기 전반에서 수사학을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수사학이 애초부터 말하기와 글쓰기의 종합적인 체계이기 때문이다. 즉 (고전) 수사학의 핵심을 이루었던 구어적 연설문 작성과 연설 기법은 문어적 글쓰기의 지침으로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글쓰기에서의 수사학의 부활은 '줄어든' 수사학에서 벗어나 자유교양학문(art liberale)으로서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탈근대 사회의 극도로 세분화되고 다양해진 지식의 지형도 앞에서 총체적 사유와 보편적 가치를 탐색하고자 하는 인문학 전반의 정체성 찾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하겠다.

학문적 글쓰기에서 수사학을 논의할 수 있는 까닭은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다. 특정 주제에 관한 글쓰기 과정, 즉 주제설정 - 자료수집 - 개요 작성

* 본 논문은 2005년 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과제번호: AM0033).

1) Theresa Enos: Encyclopedia of Rhetoric and Composition, Communication from Ancient Times to the Imformation Ages, Routledge 1966. p.123.

- 쓰기 - 퇴고²⁾의 과정은 수사학적 표현을 빈다면 착상, 배열, 표현을 의미한다. 그러나 글쓰기는 표현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각 학문의 연구결과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즉 수사학의 발표(actio, pronuntiatio)의 과정까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전달 과정을 통해 쓰여진 글은 저자의 손에서 벗어나 독자와 만나게 되고, 엄밀한 의미에서 이때부터 비로소 독자들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삶을 시작한다. 다시 말해 주제설정 - 자료수집 - 개요 작성 - 쓰기 - 퇴고까지가 여전히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을 말한다면, 독자들에 의해 읽혀지고 이해되는 수용 혹은 소통 과정 또한 생산과정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렇게 발표의 단계까지를 포함한 글쓰기는 궁극적으로는 전달을 통해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독자와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바로 이 점에서 다시 한 번 설득의 학문인 수사학을 논의할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설득이란 대단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치고, 그것이 가지는 함의 또한 시대나 학자들에 따라 실로 다양하며,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³⁾ 수사학에서는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런 까닭에 글쓰기와 수사학의 관계를 논의하는 이 글에서는 글쓰기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달과 소통 행위를 넓은 의미의 '설득' 행위로 규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본다면 학문적 글쓰기의 설득은 일차적으로 동일한 학문 연구자들 사이의 설득, 넓은 의미에서는 학제간, 학문 간의 설득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문가 집단과 학문 연구의 수요자인 일반 독자 사이의 설득 등 여러 층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벗어나 일반 독자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 될

2) 패트릭 하트웰,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 최신작문이론, 이울환 외 편역, 경문사 1985, 11쪽 이하 참고.

3) 형식논리학을 비롯하여 인공 언어로 쓰여진 이른바 엄밀과학에서와는 달리 수사학에서는 애초에 설득의 요소를 처음부터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사학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연설을 통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에서 감정적 근거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 수사학 체계를 로마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맞게 수용했던 키케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다. 키케로는 수사학을 "영혼을 변화시키는 (학문의) 여왕 *seelenwendende Königin*"이라 불렀고, 이로써 설득적 변화를 의미했다. 그는 심지어 "청중이 연설가에게 마음이 끌리고 스스로 깊이 감동받은 나머지, 판단과 숙고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분의 충동과 격한 감정에 의해 이끌리는 것"을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그러나 바로 이 같은 설득에 대한 이해는 수사학의 태동 이후 학문의 역사에서 수사학이 오해를 받은 주된 요인이 되었고, 이미 쿤틸리아누스는 자신의 수사학 체계에서 이처럼 비난의 소지가 많은 설득 수사학에서 표현 수사학으로 수사학의 초점을 옮겨놓았다.

수록 그 글의 설득 효과는 그만큼 더 큰 것이라 부를 수 있겠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학문적 글쓰기가 설득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해 소통의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누누이 지적되었다.⁴⁾ 그것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학문 연구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면서 특수한, 심지어는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 몰입하다 보니 학자들 사이에서조차도 보편적 관심사로 환원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수성과 전문성이란 이름으로 비롯되는 이 같은 폐쇄적 경향은 실제로는 전인(全人)적 이상을 추구하던 고전적 지식인에서 전문화된 지적 기능인으로 변모한 이른바 '도구적 지식인'의 출현과 더불어 심화되었다. 이 같은 근대 이후의 학문 전통은 여러 가지 대안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⁵⁾ 오늘날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다음 단계에서 일반 독자와의 소통의 부재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독자와의 의사소통의 부재는 연구자들이 그들만의 글쓰기 방식(주로 논문 형식)과(주로 외국어로 된) 전문 용어를 구사하며, 자신들만의 담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실과 유리된 아카데미 공간에서만 통용되는 담론을 양산하는 지식인들은 오히려 영토 없는 왕처럼 현실적 토대를 갖지 못한 채, 그 사회의 이방인 혹은 주변인으로 전락할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대다수의 인문학자들이 그러하듯, 구체적이고 현실적 사안들에 대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가치중립적이고 현실초월적인 태도만을 고집할 때 더욱 심화된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학문적 글쓰기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특히 소통과 설득의 부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의 해결 가능성을 수사학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학문적 글쓰기에 사용되는 설득적 요소를 정립해 보고, 설득의 대상이 되는 독자(청중)의 문제를 다루어 보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설득을 위한 문제상의 전략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학문적 글쓰기의 출발점이자 최종적인 목표로서의 에토스의 문제를 재고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짧은 글에서 모든 학문 분야의 글쓰기를 논의할 수는 없는 까닭에 여기서는 주로 인문학적 글쓰기에 국

4)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민음사, 1996. 조한해정, 글읽기와 삶읽기, 또 하나의 문화 1994 등 참고.

5) 이처럼 분화되고 이성 중심적인 학문 추구에 대한 대안적인 시도의 한 예로 Anthrophosophie를 들 수 있겠다. 인간의 능력 중 머리 뿐 만 아니라 몸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이들의 정신은 특히 대안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오늘날 이른바 '몸의 철학'도 이성 중심의 철학에 대한 대안적 시도라 하겠다.

한시킴으로 한다.

II. 학문적 글쓰기에서의 설득의 요소

1. 논리적 증명

학문적 글쓰기는 한마디로 특정 주제에 관한 논증 행위이다. 논증 행위가 학문 탐구에서 주를 이루어야 한다는데 이의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학문의 역사는 논증 행위와 논증 방법론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논증이란 전제(Prämisse)에서 출발하여 결론(Konklusion)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여러 가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명제는 참에 해당하고, 이렇게 증명된 결론은 공격받을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⁶⁾ 나아가 근대 이후 학문의 역사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자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에 휩싸이지 않는 과학적 엄격성과 객관성이란 카테고리라는 개념의 엄밀함을 보증할 수 있는 인공 언어, 이른바 학술 용어들을 통해 다의성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자연 언어 혹은 일상 언어와의 간격을 더욱 넓혀갔다.

우리가 인문학적 글쓰기를 학문 연구란 범주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상, 논증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문학적 글쓰기는 논리적 증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논리적 증명이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데 주력한다면 인문학적 글쓰기에서는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속하고, 실제로는 여러 개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의견의 차이와 다양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문학적 글쓰기에서의 논증은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처럼 매순간, 모든 행동에 대해 그때그때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상논증(Alltagsargumentation)은 아니지만,⁷⁾ 그렇다고 일상불란한 논리적 증명의 도식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그런

6) Vgl. Lothar Kolmer u. Carmen Rob-Santer, Studienbuch Rhetorik, Paderborn 2002, S. 154ff. 고대 그리스·로마로부터 도입된 이 같은 논증방법은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정교해졌고, 특히 삼단논법(Syllogistik)은 이천년 이상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Syllogistik은 무엇보다 kategorische, konditionale, disjunktive Syllogismen으로 나누어지고, 이것에 더해 특별한 사례로 Enthymen과 Epicheirem으로 구분된다.

7) Vgl. Lothar Kolmer u. Carmen Rob-Santer, a.a.O., S. 149ff.

이상 글쓰기는 수시로 선택과 의사결정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이처럼 다양한 결론 가운데 특정 결론을 선호하는 행위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독자의 동의나 합의를 구하는 설득의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인문학적 글쓰기에서의 추론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 뿐인 답이 아닌 '가장 타당한' 답을 찾아내고, 이를 위해 공공의 동의와 승인을 얻어내는 과정이라 하겠다. 이 때 수사학적 추론은 숙고(deliberation)와 선택을 위한 매개 장치 역할을 한다.

2. 정서적 설득

이렇게 수사학적 추론이 일상 논증과 논리학적 증명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그로 인해 선택과 결정이라는 수사적 상황 속에서 작동한다면 논리 증명에서 배제되었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객관적 증명이나 사실 검증이 글쓰기를 주도하게 될 때, 이는 일방적인 진술이나 분석으로 기울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사실(Fakt) 자체와 사실들의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증명, 오류의 여지가 없는 사실 증명이 학문 연구의 근간을 이루면서, 저자나 독자의 심리적 요인은 학문적 논의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고대 수사가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삶의 전반에서 하나뿐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즉 철학적인 논의에서와는 달리 '최초의' 혹은 '마지막'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를 위해서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인식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 수단을 설득으로 생각했고, 이로써 설득수사학(Persuasionsrhetorik)을 만들어 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자신의 설득(pisteis) 개념을 위해 사실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사회심리적인 요소를 연결시켰다.

글쓰기에서의 수사학의 부활은 심리적, 설득적 요인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수사학적 전환(rhetorical turn)'은 나아가 설득적 장치 중에서도 논리적 설득 뿐 아니라 정서적 설득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논리적 설득을 공리적 설득과 규율적 설득으로 나누고, 정서적 설득은 이 두 가지를 보완하는 설득 유형으로 분류한다면,⁸⁾ 정서적 설득은 논리적 설득에 비해 타당

8) 쿠사노 코이치, 논리적 설득의 기법, 김영국 옮김, 신세대 1998, 67쪽 이하 참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회형, 법정형, 식장형 연설이란 분류를 재구성하여 공리적 설득, 규율적 설득, 정서적 설득이라고 부르고 있다.

성이나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들은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서적 설득은 공리적 설득이나 규율적 설득이 유효하지 못해 부득이 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들어 설 수 없는 미묘하고도 미세한 영역에서 탁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인문학과 같이 인간의 심리나 삶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분야일수록 공리와 규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심리적, 정서적 설득의 필요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 이때의 심리적, 정서적 설득이란 단순히 감정 자극을 통해 독자의 동정심을 불러내거나 선동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서적 설득이란 오히려 공리적이고 규율적인 담론 뒤에 가려져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그 속을 깊숙이 흐르고 있는 저자의 세계관이나 가치, 감동, 고통, 상처 등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같은 암묵적인 교류가 가능할 때에 단순히 이성적 차원에서의 설득, 즉 지식 차원의 설득이 아니라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설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수사학에서 지향하는 설득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명이나 감정적인 호소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자 모두를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수사학에 기반을 둔 학문적 글쓰기에서는 논리적인 증명이 전부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논리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이분법적인 구도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 요소는 대립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린 관계 속에 있다.

3. 수사학적 설득에서의 개연성과 우연성

이렇게 수사학적 추론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인문학적 글쓰기의 영역은 엄밀하게 말하면 필연적 진리나 오류가 없는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개연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의 영역을 개연적인 것에 두었듯이, 수사학의 영역 또한 개연적인 것에서 찾았다. 이때의 개연성이란 수학적이거나 통계적 개연성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적이고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서의 개연성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개연이 아닌 우연의 영역은 과연 논의할 가치를 갖지 못하는가? 과학실증주의적 논의에서는 우연적인 것들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것은 합리적 사고나 다양한 논증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원시 사회나 사적인 공간에 속하거나 통계적인 발생 빈도에서 일정 수치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필연성과 객관성이 인식론의 주제가 된 이래 우연성은 학문 탐구에서는 배제시킴도 무방한 요소, 즉 필연성을 탐구하는 가운데 얻어진 부산물 정도로 설명된다.⁹⁾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인간의 많은 행동이나 결정들은 대단히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 즉 삶의 현상은 “수수께끼 같은 것, 갑작스러운 것, 다의적인 것, 카니발적인 것, 진복적인 것, 해체적인 것, 한마디로 무질서(das Rätselhafte, Plötzliche, Vieldeutige, Karnevalistische, Subversive, Destruktive, die Un-Ordnung)”¹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은 많은 경우 이 같은 무질서와 우연에 내맡겨지며, 따라서 판단과 선택, 즉 심사숙고 과정은 우연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인간 행동에 대한 반성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학문의 영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인문학적 글쓰기에서는 우연적인 사태들도 탐구와 숙고에서 배제될 수 없고, 따라서 필연성과 개연성의 영역을 넘어 우연성의 영역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열어둘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우연적으로 보이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언젠가 인식의 발견에 기여할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직 정당화되지 않고 엄격하고 정밀한 학문적인 기준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어떤 이론도 우연적이거나 개인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모든 정당화된 이론들도 애초에는 사소하고 터무니없이 보였던 현상에서 출발하여 인식에 도달하는 발견술(Heuristik)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4. 설득 개념의 변화

칸트도 수사학이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기술”(『Kritik der Urteilskraft』, 53 Par.)이라 불렀듯이, 수사학의 설득 개념은 조작기술, 심지어는 속임수란 부정적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이처럼 악의적인 입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설득에 대한 부정적 함의는 학문적 글쓰기에서도 여전히 드러난다. 예컨대 비록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라 하더라도 기존의 설득 개념은 여전히 저자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다시 말해 저자는 계몽의 차원에서건 설명의 차원에서건 설득을 유도하는

9) Vgl. Dilip Parmeshwar Gaonker, Introduction: Contingency and Probability, in: A Companion to Rhetoric and Rhetorical Criticism, ed. by Walter Jost and Wendy Olmsted, Blackwell Publishing, 1988, pp. 5-21.

10) Klaus-Michael Bogdal, Von der Methode zur Theorie. Zum Stand der Dinge in den Literaturwissenschaften, in: K.-M. Bogdal(Hrsg.), Neue Literaturtheorien, Darmstadt 1990, S. 27.

주체가 되고, 독자들은 그에 의해 주도되는 피동적 입장에 머무르게 된다. 이 같은 설득은 여전히 일방통행(Ein-Weg-System)적이고, 독자를 설득시키려 하는 태도는 '창조'하는 저자의 권위에 복종하게 만든다. 아울러 저자의 권위가 인쇄된 텍스트의 권위로 넘어가면서, 학문 전통을 이루는 주류 이론들을 설득의 논거로 삼고, 수많은 인용과 주석, 그 밖의 규범적 논문 형식을 통해 권위를 정당화시키려는 노력이 학문적 글쓰기를 지배해 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과 권위에 의거한 설득인 것이다. 이미 공유된 지식과 그 지식에 기반한 인식 방식을 일정 부분 반복하고 답습하는 것은 어느 학문공동체를 막론하고 불가피하지만, 여기서 한 연구자가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좀처럼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연유에서 잭 메이랜드 Jack Meiland는 논증 행위가 설득을 추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¹¹⁾ 자신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설득시키려 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견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를 중시하는 설득 행위에서 비롯된다. 이 경우 설득 행위는 발화자가 상대방의 의견이나 태도 혹은 행동 양식을 바꾸는데 성공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나 설득이란 인간의 고도로 복잡한 심리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작동 메카니즘이며, 인간의 심리상태란 거울처럼 투명하거나 일사불란한 논리의 체계가 아니다. 따라서 설득이란 생물학적 자극과 반응 모델(Stimulus-Response Modell, Reiz-Reaktions-Modell)이나 수단과 목적 관계(Mittel-Zweck-Relation)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나 지식의 양적 변화의 과정이 아니며, 단 한 번에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일회적인 작업도 아니다. 오히려 저자와 독자가 쌍방향으로 여러 차례의 '거부'와 '승인'을 반복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두 당사자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설득이란 수용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해 구조 속에서 발화자의 의도를 주목하고, 인지하고, 해석하고 평가(Aufmerksamkeit - Wahrnehmung - Interpretation - Bewertung)하는 선택(Selektivität) 행위이며, 결과의 관점이 아닌 '과정'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¹²⁾

11) Vgl. Jack Meiland, "Argument als Inquiry and Argument as Persuasion", Argumentation 3.2(May 1989): 185-96pp.

12) Vgl. K. Mertens, S. J. Schmidt u. S. Weischenberg (Hrsg.), Die Wirklichkeit der Medien. Eine Einführung in die Kommunikationswissenschaft, 1994, S.

이 같은 설득 개념의 변화는 글쓰기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신의 견해를 강변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 그리고 잠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자 혹은 독자가 지금 당장 자신의 견해와 결단을 바꾸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 태도를 바꿀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으로 글쓰기에서의 설득의 목표와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입장의 부재¹³⁾나 입장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장은 변화 가능할 때에야 살아있는 입장이 되고, 변화가 가능하지 않은 입장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은 것, 다시 말해 학문적 논쟁이란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논증할 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III. 학문적 글쓰기의 수사적 설득 전략

1. 설득 대상으로서의 독자의 범주와 역할

어떤 종류의 글쓰기를 막론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독자를 상정하지 않은 글은 없다. (심지어 일기와 같은 가장 주관적이고 독백적인 글쓰기조차 비록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독자를 상정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 독자란 글쓴이 자신이나 허구의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한 진술과 보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문적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자를 상정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연구자와 이해 지평을 함께 하는 특정 집단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학문적 글쓰기가 이 같이 특정한 독자에서 끝나지 않고 나아가서는 전문가와 일반 독자, 학문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이들 사이의 만남을 중재하는 것이라면 일반 독자와의 관계 또한 보다 폭넓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학문적 글쓰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독자 지향적, 수신자 지향적이 되어야 마땅하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회와 같이 연설이 공적 의사소통의 주된 통로였을 때는 청중은 눈앞에 있는 실체 청중을 의미하였고, 연설가는 자신의 논지에 대한 설득을 얻어내기 위하여 청중에게 직접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연설이나 웅변이 글로

291-328, S. 314.

13) 김종갑, 입장의 부재와 논문의 과잉, 고려대학교 레토릭 연구소 2006년 1월 발표집, 1-12 쪽 참고.

쓰여진 텍스트로 옮겨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득 전략은 눈 앞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시민 사회와 정보 사회가 진행될수록 독자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급격히 늘어나는 매체의 종류나 역할과 더불어 독자를 위한 설득 전략은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수용 미학, 독서미학 등을 통해 '내포 독자(implizierter Leser)'¹⁴⁾ 혹은 '이상적 독자(idealer Leser)'라는 개념이 대두하면서 독자는 저자의 논지를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수용자로 변하게 된다. 이제 저자와 거의 동등한 위상으로까지 부상한 독자는 심지어는 그것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비평가의 입장까지도 취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글쓰기와는 달리 학문적 글쓰기는 일차적으로 이해의 지평을 공유하고 있는 전문독자를 지향한다.¹⁵⁾ 즉 사전에 어느 정도의 지적 지평을 공유하지 않은 일반 독자를 실제로 이상적인 독자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문적 글쓰기의 이상적인 독자는 일차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추론하는 소수의 독자인 것이다. 그러나 그 글쓰기의 결과가 소수의 전문가 집단, 즉 특정 독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독자층으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특정 독자가 아닌 '보편 청중(universale Öffentlichkeit)'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때의 보편 청중이란 물리적 의미에서나 양적인 의미에서 다수의 대중(Masse)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보편 청중이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추론과 합리적인 언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즉 보편 청중이란 특정 청중과는 달리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개별적이고 특수한 가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것을 보편적 가치로 확대시킬 수 있는 집단이다.¹⁶⁾

학문적 담론이 비록 특정 청중의 관심에서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 이론이 일반화되면서 다른 보편 청중, 심지어는 일반 대중의 관심사로 발전하는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학문적 글쓰기가 파급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특정 청중, 즉 소수의 전문가들의 관심사를 넘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편적 청중의 관심사와 보편적

14) Vgl. Wolfgang Iser, *Der implizierte Leser. Kommunikationsformen des Romans von Bunyan bis Beckett*, München 1972, S. 7ff.

15) 역사적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전문독자를 고전어를 이해하는 계층, 그리고 17세기 이후에는 이른바 학자공화국 *Gelehrtenrepublik*으로 일컬어지는 대학, 학술원, 학술단체에 속하는 독자층을 일컬어 왔고, 동양 사회에서는 한자문헌을 이해하는 독자층을 주로 지칭해 왔다.

16) Vgl. Perelman, *Das Reich der Rhetorik. Rhetorik und Argumentation*, übers. v. Ernst Wittig, München 1980, S. 22ff.

가치로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지식 사회의 일반 독자들은 보편 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고 능력과 지적 안목, 특정 분야에 관한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일반 독자에게서 보편 청중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더 한층 높아진 독자들의 지적 수준과 관심사가 학문 연구를 추진시키는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학에서 차지하던 청중의 의미를 오늘날의 학문적 글쓰기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연설 작성시 어떤 종류의 청중이 있으며, 어떤 종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또한 다양한 언어 사용이 각기 다른 부류의 청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고 믿었던 수사학의 청중에 대한 관심사는 오늘날의 학문적 글쓰기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다. 어떤 의미에서건 오늘날의 학문적 글쓰기는 자신들만의 글쓰기가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청중 혹은 독자를 배려한 글쓰기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2. 설득을 위한 수사적 문체와 문체

설득적 글쓰기를 위해 독자의 문제에 이어 수사적 문체(Stil)와 문체(Figur)를 논의하게 되는 것은 글쓰기란 논증 행위인 동시에 표현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양자의 비중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 것도 사실이지만,¹⁷⁾ 논증 행위가 표현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비록 과학적이고 엄밀성을 추구하는 학문적 글쓰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수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멜리 옥센버그 로터 Amelie Oksenberg Rorty가 “데카르트는 발견과 증명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자신의 엄격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는 자신의 제안을 철저히 따르지 않았다”고 (넬슨, 2004, 8쪽) 지적한 것처럼, 학문적 엄격성과 객관성을 주창하는 학자라 하더라도 수사적 장치를 전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또한 수사적 문체나 문체가 단순히 말과 글의 장식과 치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논증 행위를 추동시키는 사고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논증의 결과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언

17) Vgl.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Rhetorik, Hrsg. v. Gert Ueding, Bd. 6, Tübingen 2003, S. 874-907. 예컨대 G. A. Kennedy는 설득 중심의 수사학(Persuasionsrhetorik, ars persuadendi)을 ‘primary rhetoric’으로, 그에 반해 표현 수사학(Eloquenzrhetorik, ars bene dicendi)을 ‘secondary rhetoric’이라고 부른다.

어를 구사하려는 표현(elocutio) 영역의 부단한 시도이며, 나아가 이를 통해 최대한의 전달 효과를 꾀하려는 설득 행위 자체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 모든 종류의 문체나 문체는 궁극적으로는 설득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특히 학문적 글쓰기의 문체의 하나로 대화적 문체, 특히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문답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 학문적 글쓰기에서의 문제제기의 중요성 때문이다.¹⁸⁾

문제제기(quaestio)의 중요성은 이미 고대수사학에서부터 언급된다. quaestio는 찬반으로 나누어지는 논쟁의 원래 관건으로, 고대 수사학의 체계를 완성시킨 퀸틸리아누스는 이를 텍스트를 관통하는 주된 질문이라고 명명하고, 하나의 텍스트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⁹⁾ 이것에 따르면 quaestio는 말하려는 의도, 즉 화자의 목표 혹은 의사소통적 관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어쨌거나 퀸틸리아누스는 서두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기를 연설의 주안점이라고 불렀다. 물론 이때의 문제 제기는 착상(inventio)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이처럼 착상 영역에서의 문제 제기 뿐만 아니라 학문적 글쓰기의 전 과정은 크고 작은 문제 제기와 해결 찾기의 연속이라고 부를 수 있다.

미셸 메이에르는 이를 자신의 문제학(Problematology)에서 중요한 철학적 주제로 삼았다. 즉 하나의 문제 제기는 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그 답은 다시 질문이 되어 다음 대답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⁰⁾ 이렇게 메이에르는 글쓰기의 과정을 문제 제기와 문제 해결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오늘날의 글쓰기를 문제 제기가 없이 대답만 열거된 글쓰기라고 비판한다. 문제 제기를 소홀히 하고 대답만 있는 학문적 글쓰기는 학문 공동체의 전통과 결과물을 아무런 반성이나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학문적 전통이 강한 집단일수록 문제 제기가 없는, 혹은 애초에 문제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권위주의의 복종을 은연중에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글쓰기는 이미 검증된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학문연구자들의 지식과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

18) 우리나라 현행 작문 교육에서도 전략 중심의 쓰기 지도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이 모델은 문제 해결 중심의 쓰기 지도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어교육연구소 편,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사 1999, 663쪽 참고.

19) Christian v. Sutterheim, Einige Prinzipien des Textaufbaus. Tübingen 1997, S. 8.

20) 미셸 메이에르, 언어와 문학, 의미에 관한 시론, 이영훈, 진종화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65쪽 이하 참고.

초에 무엇을 위한 글쓰기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숙고가 부족하다는 말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비개인적인 글쓰기로 이어진다. 저자는 텍스트의 객관성과 초월성 뒤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지식의 중개자, 즉 도구적 지식의 전달자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학문적 글쓰기에서의 문제 제기는 저자의 목소리나 스타일이 제거된 비개인적 글쓰기가 되는 것을 상당 부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수사학에서 말하는 목소리(vox)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설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연설의 내용만큼이나 그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그 중에서도 목소리의 적절한 사용을 강조했던 것처럼 학문적 글쓰기는 기존의 담론들 속에서 잠식당하지 않고 저자가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부단한 시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문적 글쓰기가 질문하는 행위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선적이거나 평면적인 서술(narratio) 구조보다는 다각적인 대화(dialog) 구조를 취할 수 있다. 이때의 대화적 구조란 외형적으로 반드시 의문문(질문)과 평서문(대답)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오히려 텍스트의 내적 구조가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음을 제기하는 수사적 문채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다양한 수사학적 문채, 그 중에서도 저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질문과 대답(문답법), 독백적인 질문(수사적 의문문), 가상 독자와의 대화(대화법)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²¹⁾ 예컨대 수사적 의문문(rhetorische Frage, Rogation)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대답을 전제해 놓고 그것을 단순히 반문하는 형식적인 절차라고만 부를 수는 없다. 수사적 의문문은 단언적인 명제가 가지는 자명함에 대해 재고해볼 여지를 만든다. 이것은 단순히 허위의 질문이나 불필요하고 장식적인 문채가 아니라 기정사실화된 주장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수사적 보조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나아가 텍스트 속에서 독자들과의 대화를 유도하고 그들을 지적 추론 과정

21) Vgl. J. Domink Harjung, *Lexikon der Sprachkunst. Die rhetorischen Stilformen mit über 1000 Beispielen*, München 2000, S. 205ff. Harjung은 이른바 의문무늬(Fragefigur, Erotematik)를 24가지 유형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미 진술한 명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의문무늬의 몇 가지 유형을 예로 들자면 Zurückweisung, Fragen, die Zweifel äußern, Ermahnung, Einspruch, Protest, Vorhaltung, Abratendes Warnen 등이 있다.

에 참여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이 논증 행위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다시 말해 단순히 저자의 권위와 인쇄된 문자의 권위를 추종하는 무비판적인 읽기가 아니라 부단히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는 수사학적 읽기로 나아가게 한다.

물론 학문적 글쓰기는 문학적 글쓰기와 달라서 말무늬(Wortfigur)들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글의 진정성을 떨어뜨릴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렇다고 해도 학문적 글쓰기가 나름대로의 개성적 문체를 포기하고 틀에 박힌 비개인적 글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오늘날 '에세이'²²⁾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식의 '창작적 글쓰기'²³⁾가 논문 형식의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4. 수사학적 에토스: 윤리적, 실천적 행위로서의 학문적 글쓰기

이렇게 학문적 글쓰기를 특정 주제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객관적 논증과 심리적, 정서적 설득을 시도하며 이에 상응하는 표현법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규정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인 동시에 지향점이 되어야 할 한 가지 문제로 되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글쓰기에서의 에토스의 문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화자 자신이 에토스, 즉 통찰력(practical wisdom, Einsicht)과 덕성(virtue, Tugend), 그리고 호의(good will, Wohlwollen)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²⁴⁾ 다시 말해 이때의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기품 혹은 도덕성과 관련되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파토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에토스는 특정 주제에 깔려 있는, 혹은 특정 주제를 넘어서 연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가치의 문제와 관련된다.

설득 행위에서 연사 자신의 에토스가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 혹은 자기 신뢰야말로 모든 설득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²⁵⁾ 예컨대 이 같은 에토스를 구현한 전형적인 인

22) 민형원, 현대철학의 글쓰기 형식으로서의 에세이, 미학 제30집 (2001년 5월), 137-168쪽 참고.

23) 신태수, 인문학문으로서의 글쓰기 경향과 그 반성, 한민족어문학 제36집, 231-251쪽 참고.

24) Aristoteles, On Rhetoric, 1378a, translated by George A. Kennedy, New York 1991, p. 120.

25) 자기 확신을 수반한 설득 행위(Überzeugen)와 자기 확신이 없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관계

물로 일컬어지는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직면하여 영혼불멸에 관한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²⁶⁾ 그는 "내가 말하는 것을 나의 청자들에게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것을 믿도록 만들려고 애쓴다(I shall not be eager to make what I say seem true to my hearers, but shall be very eager to make myself believe it)"²⁷⁾ 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기 설득이란 순전히 논리적이거나 감정적인 차원에 끝나지 않는 윤리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윤리적 행위는 실천적인 결정으로 이어진다.²⁸⁾

학문 행위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학문공동체와 그것이 속한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학문적 글쓰기, 특히 인문학적 글쓰기는 "삶의 원리와 이치를 가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이며 "인격적 완성을 위해 삶을 반성하는 작업"²⁹⁾인 동시에, 논증적인 추론을 통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즉 학문적 담론은 개인의 지적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사회적 가치와 합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같은 전제로 돌아간다면, 자기 신뢰와 확신에 근거한 수사학적 에토스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적 글쓰기는 종국적으로 모든 가치에 대한 사변적이고 주관적인 회의로 끝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즉 오늘날 점점 분화되어가는 다원론적 가치 체계 속에서 인문학적 글쓰기의 가장 피하기 어려운 유희 중의 하나인 회의주의나 (감상적) 주관주의, 가치중립주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탠리 카벨Stanley Cavell은 회의주의를 "철저한 논증에 대한 거부"이며, "안전한 곳으로의 도피"이며, "이성의 책임감에 대한 부정"³⁰⁾이라고 비판한다. 즉 자기

에서 나온 조작적인 행위로서의 설복(Überreden)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독일에서는 특히 Gottsched와 Zedler, Sulzer 등의 계몽주의 시대 수사학 이론서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26) Eugene Garver, *Ethos: Socrates Talks Himself Out of His Body: Ethical Argument and Personal Immorality in the Phaedo*, Walter Jost, a.a.O., p. 206-220, p. 210.

27) Platon, *Phaedro* 91a8-9. In: *Platon: The collected Dialogues including the Letters*, edited by Hamilton & Huntington Cairns, Princeton 1973.

28)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날의 학문적 글쓰기는 자기 확신이나 신뢰에서 출발하기보다 도구적 지식을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적 이성technische Vernunft'에 기반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겠다. 이 경우 자기 신념과 연구 수행은 별개의 문제로 분리되고, 이런 분리 현상은 '기능적 이성'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29) 신태수, 위의 글, 234쪽.

확신에서 출발한 학문적 글쓰기는 비록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글쓴이와 독자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에토스를 유발하는 실천적 행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독자들로 하여금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중재하는 합의의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 또한 하나의 결과물을 불변의 상황으로 전제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다르게 볼 수 있는”³¹⁾ 시선을 열어주는 데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학문적 글쓰기가 수사학적 에토스에서 출발하여 ‘결과로서의 설득’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설득’ 행위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며, 열린 결론이 허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IV. 열린 결론

지금까지 학문적 글쓰기, 특히 인문학적 글쓰기에서의 설득의 문제를 고전수사학을 비롯하여 신수사학, 이성의 수사학, 탐구의 수사학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수사학적 설득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는 어떤 글쓰기 형태보다 저자 중심적인 학문적 글쓰기를 독자 지향적이 되어야 하며, 전문가 집단인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독자층을 지향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설득을 위한 가장 적절한 문체와 문체를 찾아내는 표현 영역의 부단한 노력을 동시에 요구한다. 이 같은 입장은 글쓰기가 궁극적으로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시민적이고 공공의 담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수사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글쓰기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수사학적 글쓰기는 무엇보다 그간 학문 탐구를 지배해온 논리학과 형식과학에서 배제되었던 삶의 문제를 다시 직시하게 만든다.³²⁾ 다시 말해 삶의 구체적인 갈등을 배제시킨 채 개념화된 논리와 추상적 언어로 학문 탐구를 수행하려 했던 학

30) 스텐리 카벨은 비록 회의주의에 일종의 진리나 고상한 소망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회의주의는 진리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단지 인간에 대한 지속적인 인간의 위협이다”(Conditions 24쪽) 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크로스하이트 79쪽에서 재인용.

31) James L. Kastely: Pathos: Rhetoric and Emotion, in: Walter Jost & Wendy Olmsted ed. A Companion to Rhetoric and Rhetorical Criticism, Blackwell Publishing, 2004, p. 221-237, p. 229.

32) 강영안, 최진덕: 수양으로서의 학문과 체계로서의 학문, 철학연구 제47집, 35-63쪽, 신태수: 인문학문의 글쓰기 경향과 그 반성, 실린 곳: 한민족어문학 제36집, 231-251쪽 참고.

문 연구자들은 다시 삶의 구체적인 갈등으로 눈을 돌리고 그것에 어울리는 글쓰기 형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그간 잊혀져 있었던 수사학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때의 수사의 정신이란 초월적이고 관념적인, 투명한 공간에 머물지 않고 삶의 우연한 현장에서도 비롯될 수 있으며, 담론을 통한 가치 선택과 의미의 조정 행위, 나아가 실천적, 윤리적 행위를 추구한다.

우리의 학문적 글쓰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지식과 정보의 늪에서 허덕이며, '논문' 형식이란 구속적인 틀 속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논리의 순환운동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는 논문심사자나 지극히 제한된 독자밖에 읽지 않는 글쓰기를 계속한다. 인문학적 글쓰기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거나 삶을 살아갈 지혜를 제공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삶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인간과 삶을 위한 인문학이 인간과 삶을 배제한 인문학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애초에 수사학이 있던 자리, 모든 학문 영역을 가로지르던 자유학문 혹은 기초학문으로서의 자리를 되짚어 보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이나 결정의 매체로서의 수사학, 키케로가 강조했던 것처럼 '공동의 선(Gemeinwohl)'을 위한 수사학적 정신을 되살려 봄직하다.

수사학적 설득은 의견의 다양성과 차이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조정하고 공동의 선을 모색하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학문적 글쓰기에서의 수사학의 적용은 상호간의 중재나 설득과 소통의 정신을 회복하고, 삶의 문제를 배제시키지 않는 공공의 담론을 창출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문헌

- 강영안, 최진덕: 수양으로서의 학문과 체계로서의 학문, 실린 곳: 철학연구 제47집, 35-63쪽.
- 신태수: 인문학문의 글쓰기 경향과 그 반성, 실린 곳: 한민족어문학 제36집, 231-251쪽.
- 전남대학교 출판부, 글쓰기. 인문학편 2002.
- 쿠사노 코이치: 논리적 설득의 기법, 김영국 옮김, 신세대 1998.
- Aristotle: On Rhetoric. A Theory of Civic Discourse, trans. by George A.

- Kennedy,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Crosswhite, James: 이성의 수사학, 오형엽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 Enos, Theresa: Encyclopedia of Rhetoric and Composition, Communication from Ancient Times to the Information Ages, Routledge 1966.
- Harjung, J. Domink: Lexikon der Sprachkunst. Die rhetorischen Stilformen mit über 1000 Beispielen, München 2000.
- Hattwell, Patrik: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 최신 작문 이론, 이을환 외 편역, 경문사 1985.
- Jost, Walter and Wendy Olmsted (Edit), A Companion to Rhetoric and Rhetorical Criticism, Blackwell Publishing 1988.
- Kolmer, Lothar u. Carmen Rob-Santer: Studienbuch Rhetorik, UTB 2335, Paderborn 2002.
- Meyer, Michel: 언어와 문학, 의미에 관한 시론, 이영훈, 진종화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 Nelson, John S.: 인문과학의 수사학. 학문과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언어와 논증, 박우수 외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Olson, Gary A. (Ed), Rhetoric and Composition as Intellectual Work,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2.
- Perelman, Chaim: Das Reich der Rhetorik, Rhetorik und Argumentation. Übers. v. Ernst Wittig, München 1980.
- Sutterheim, Christian v.: Einige Prinzipien des Textaufbaus, Tübingen 1997.
- Ueding, Gert: Rhetorik des Schreibens, Eine Einführung. Beltz Athenum Verlag, Weinheim 1996.
- Ders.: Rhetorik zwischen den Wissenschaften, Tübingen 1991.
- Ders.: Grundriss der Rhetorik, Stuttgart ³1994.

Zusammenfassung

Wissenschaftliches Schreiben und rhetorisches Überzeugen

Ahn, Mi-Hyun (Hankuk Univ. für Fremdsprachen)

Der Grund, im Bereich des Schreibens aller Arten die Rhetorik zu erörtern, liegt darin, dass sich die Rhetorik von ihrem Ursprung bis in ihre lange Geschichte hinein als ein Gesamtsystem des Redens wie des Schreibens erwiesen hat. Das Wiederbeleben der Rhetorik im Bereich des Schreibens entspricht einerseits dem Versuch, ihr altes Terrain als *ars liberalis* wieder zurückzugewinnen, andererseits in extrem differenzierten Wissenschaftsdisziplinen des sogenannten postmodernen Zeitalters möglichst integrierende, allgemeingültige Werte aufs Neue zu erforschen.

Unter den verschiedensten Problemen des Schreibens, die heutzutage insbesondere in geisteswissenschaftlichen Aufsätzen auftreten, wird in der vorliegenden Studie vor allem auf das Problem des Mangels bzw. des Misslingens der Kommunikation sowie der Persuasion zwischen Autor (Wissenschaftler, Experte) und Leser der jeweiligen Schichten (normaler Leser, spezieller Leser etc.) fokussiert und mögliche Lösungen hierfür werden in der Rhetorik gefunden. Es handelt sich dabei vor allem um den Wandel des Persuasionsbegriffs, die Rolle des Lesers, insbesondere der 'universalen Öffentlichkeit', und das Problem der stilistischen sowie figurativen Strategien zur Persuasion. Schließlich sollte die Frage des Ethos behandelt werden, das im Grunde von der Selbstüberzeugung des Wissenschaftlers ausgeht.

Das wissenschaftliche Schreiben ist in erster Linie als eine Tätigkeit der Argumentation zu betrachten. Die Argumentation besteht aber nicht nur aus dem logischen Beweis, wie dieser in der Wissenschaftstradition seit der Neuzeit als unangreifbare Norm gewirkt hat. Das psychologische

sowie emotionale Überzeugen, das im modernen Wissenschaftsdiskurs oft vernachlässigt bzw. als suspekt angesehen wurde, sollte aber hier nachdrücklich betont werden. Neben der logischen und psychologischen Argumentation ist es zum Gelingen der Persuasion nötig, verschiedene stilistische und figurative Strategien zu entwickeln, denn die Elocutio, ein unentbehrliches Element der Rhetorik, beansprucht im Schreibprozess das Gleichgewicht wie die Argumentation.

Schließlich sollte das wissenschaftliche Schreiben dazu beitragen, dass man dem Leser eine Möglichkeit vermittelt, die Vielfalt der Meinungen anzuerkennen und bestehende bzw. bestätigte Fakten 'anders' beurteilen zu können.

키워드:

학문적 글쓰기, 수사학적 설득, 보편 청중, 문체, 문체, 에토스

Wissenschaftliches Schreiben, Rhetorisches Überzeugen, universale Öffentlichkeit, Stil, Figur, Ethos

- 투고 : 2006년 7월 14일
- 심사 : 2006년 8월 9일 / 8월 18일
- 게재확정 : 2006년 9월 8일

- E-Mail : mihyunahn@dreamx.net
- 주소 : (480-713)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산들마을 길훈아파트 204-1802